

## ‘器械’에서 ‘機械’가 되기까지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제 일본문화연구소 객원 교수

현대국어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 ‘기계’라는 말의 한자 표기는 거의 대부분이 ‘機械’에 해당한다. 이 말은 ‘기계-공, 기계-과, 기계-식, 기계-실, 기계-적, 기계-화’와 같은 파생어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계-공업, 기계-문명, 기계-체조, 기계-세탁, 기계-제품’과 같은 복합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계’에는 ‘器械’라는 한자 표기도 있다. 그 때문에 ‘器械’와 ‘機械’와는 동음이의어 관계를 가진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에는 ‘器械’가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따위를 두루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는 반면, ‘機械’는 ‘여러 기구들로 짜여져 어떤 힘을 받아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 중에서 ‘器械’에 해당하는 말은 현대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축소되었으나, 어휘사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개념어 ‘機械’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쓰여온 전통적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불초언』(1880)이나 『한영초언』(1897)에는 ‘器械’만 보일 뿐 ‘機械’란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機械’란 표기는 개화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영어의 machine 또는 machinery에 대한 번역어이기 때문에 신생한자어인 셈이다.

‘器械’란 『周禮 天官』에 나오는 말로 ‘器’는 ‘악기(樂器) 따위처럼 어떤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임에 대하여, ‘械’는 ‘병기(兵器)’였다고 한다(佐藤喜代治 1979). 당초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器械’는 점차 ‘연장이나 연모 일반’이란 뜻으로 확대되어 쓰여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器械’가 전근대적인 연장 일반을 가

리킨다면, 현대어의 '機械'는 번역어로서 근대화 이후에 서양 문명을 통하여 새로 알려진 고도의 과학적 장치를 뜻한다.

물론 '機械'라는 말의 연원도 사실은 중국 고전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그 의미는 현대어와 달랐다. '機'란 본래 '활을 쏘다'나 '활을 쏘는 도구' 또는 '베를 짜는 도구'였다고 한다. 여기서 '機械'는 의미가 확대되어 '어떤 장치'를 뜻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機關, 器機'와 같은 유의어도 생겼다는 것이다. 佐藤喜代治(1979)는 『莊子』天地에 나오는 '機械'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밭을 만들려고 구멍을 파고 우물에 들어가 단지로 물을 퍼서 밭에 쏟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물을 길는 機械가 있다. 그걸로 물을 푼다면 힘은 적게 들고 효과는 많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남자가 “그게 어떤 것인가”고 묻기에 자공이 “그것은 두레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공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吾聞之吾師，有機械者，必有機事，有機事者，必有機心，機心存於胸中，則純白不備，純白不備，則神生不定，神生不定者，道之所不載，吾非不知，羞而不爲也。

내가 우리 선생에게 들으니 機械가 있으면 반드시 기계를 조작하는 일(機事)이 있고, 機事が 있으면 반드시 기계를 조작하는 마음 씀씀이(機心)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機심이 마음 속에 있으면 곧 마음이 純白을 갖추지 못하고(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고), 純白을 갖추지 못하면 곧 神生이 안정을 잃게 된다(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신이 안정을 잃게 된다). 神生이 안정을 잃는다는 일은 道에 실려 있지 않으니(正道에 어긋나니), 내가 모르는 얹으나 부끄러워(機械를) 쓰지 않을 뿐이다.

결국 이 때의 '機械'란 '단지'나 '항아리'보다 한발 앞선 도구라는 뜻이므로 한어(漢語) 사전류에는 '器之巧者', 곧 '정교한 그릇'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밖에도 '機械'는 '교사(巧詐)' 또는 '질곡(桎梏), 속박(束縛)'과 같은 뜻으로 쓰인 적도 있다고 한다(Lydia H. Liu 1995). 따라서 '機械'는 당초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나 도구'를 뜻했으나, 거기서 다시 '교묘하게 남을 속인다'거나 '질곡, 속박'과

같은 의미로 전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機械’란 말이 현대어와 다른 의미로 쓰인 사례는 일본어에도 나타난다. 그러한 용례로서 佐藤喜代治(1979)는 1831(天保2)년에 쓰여진 서한문 한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

右, 左六<sup>to</sup>申<sup>mono</sup>, 詐僞反覆之人<sup>nite</sup>, 如何之心計<sup>機械</sup>有之.

오른쪽에 나오는 左六이란 자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어서 어떠한 마음의 계책에도 교사함을 가지고 있다.

곧 여기에 보이는 ‘機械’는 ‘마음의 교사(巧詐)함’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 ‘機械’가 현대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면서 『西國立志編』(1870), 『萬法精理』(1874)의 용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처음 한동안은 ‘機械’와 거의 같은 뜻으로 전통적인 ‘器械’도 많이 쓰여, 바로 앞에 보인 『西國立志編』에는 ‘機械’보다 ‘器械’의 용례가 훨씬 많으며, 『萬法精理』에도 ‘器械’라는 용례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서 간행된 영일(英日) 사전류의 번역어에도 나타난다.

machine	器械, 機, 機器(尺振八 1884) 機器[kikai], 機關, 飛脚車[hikyakusya](棚橋一郎 1885) 機械(諸機械 <sup>no</sup> 總稱)(島田豊 1888)
machinery	機, 器械 <sup>no</sup> 總稱○器械 <sup>no</sup> 運用部, 動機(尺振八 1884) 器械, 器械 <sup>no</sup> 總名(棚橋一郎 1885) 諸機械 : 機械(島田豊 1888)

이밖에도 島田豊(1888)에는 machinal ‘機械<sup>no</sup>(의)’, machinist ‘機械製造師, 機械家’와 같은 번역어가 더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machine이나 machinery에 대한 번역어가 尺振八(1884)과 棚橋一郎(1885)에는 ‘器械, 機, 機器, 器機, 機關’ 등의 표기로 나타나는 반면, 島田豊(1888)에서는 ‘機械’라는 표기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일본어에서는 ‘서양식 기계’를 나타내는 말의 표기가 ‘器械’에서

점차 '機械'로 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 대한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근대 중국어에서도 '器'나 '機'의 의미는 차츰 달리 전용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 1871, 중간본 1880)에는 '器械'라는 말에 대하여 '器者 驗風雨長篷桅之類 機者 汽機也 (器는 풍우를 증험하여 배의 포장이나 돛대 따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機는 증기 기계다)'라는 주석(上卷 「論船政」 30a)이 베풀어져 있어, 그 의미가 현대어가 가까워졌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대 중국어에는 '機械'라는 말도 있다. 서양 문명식 기계를 뜻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機械'라는 말은 오늘날 한·중·일(韓·中·日)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도 같다. 그런데 당초 중국 고전에서 나온 이 '機械'란 말을 '서양식 기계', 곧 machine이나 machinery의 번역어로 전용하여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다. 거기다가 현대 중국어에 쓰이고 있는 '機械'의 의미는 일본어 '機械[kikai]'에서 차용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劉正埏 등 1984).

그렇다면 현대국어에 정착된 '機械'는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 본대로 『한불증언』(1880)에는 '機械'라는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언해본 『이언』(1883?)에 자주 나타나는 '기계'도 '器械'에 해당하는 표기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 '기계'는 한문본 원문에 '器械'라는 표기로 나타난다(宋敏 1999). 한편 『독립신문』(1896-99)에는 '기계, 기계소, 기계창, 기계학교, 기계학' 등이 쓰였다면서朴英燮(1994, 전출)은 이 때의 '기계'에 '機械'라는 한자표기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기계'에 대한 한자 표기는 '器械'였을 것이다. 『한영증언』(1897)에 '기계 器械'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하나의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機械'라는 표기는 19세기 말엽까지도 국어에 거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화 초기에 일본을 돌아본 조선 수신사나 신사유람단(1881년) 일행은 서양식 기계화 문명을 여기저기서 직접 구경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화륜선(증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올라 험한 바다를 건넜고, 화륜거(기차)라는 신기한 '기계'에 몸을 싣고 육지의 먼 길을 달렸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전신(電信)과 사진(寫眞) 기술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조폐국(造幣局), 조선소(造船所), 조지소(造紙所), 방적소(紡績所), 와사국(瓦斯局), 등대국(燈臺局) 등을 돌아보며 조선조 말엽의 선비들이 구경한 서양

문명도 곧 기계화였던 것이다. 육군과 해군의 제식 훈련과 전투 연습에서도 기계화된 장비를 보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기계(機械)’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일본에서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한문으로 작성된 문장이기는 하나 그들의 견문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김기수의 『일동기유』(『日東記遊』, 1876년 견문기)에는 ‘器械’가 여기저기에 쓰이고 있으나 ‘機械’란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나는 ‘器械’는 현대어라면 그 의미상 ‘機械’에 해당하는 말이다. 당시까지는 일본어에서도 ‘機械’보다 ‘器械’란 표기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김기수도 그들을 따라 ‘器械’란 말을 쓰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이현영의 『일사집략』(『日槎集略』, 1881년 견문기)에는 ‘機械’라는 표기가 나타난다.

機械則以火輪灌水.

機械는 곧 火輪(모터)으로 물을 댄다(4월 17일, 양력 5월 14일)

電信及鐵道鑛山 許多工作機械 次第覽之…

전신과 철도, 광산의 많은 공작 機械를 차례로 구경하였다(5월 13일, 양력 6월 9일)

앞쪽은 오사카(大阪)에서 造紙所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고, 뒤쪽은 동경에서 공부성(工部省) 전신 중앙국을 찾았을 때의 기록이다. 박영효의 『사화기략』(『使和記略』, 1883년 견문기)에도 ‘機械’라는 표기가 보인다.

往陸軍士官學校及砲兵機械廠賞翫.

육군 사관 학교와 砲兵 機械廠을 구경하였다(10월 9일, 양력 11월 29일)

이 때의 ‘機械’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안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이상과 같은 사례는 19세기 80년대 초반에 이미 ‘機械’라는 표기가 국내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 때의 ‘機械’라는 표기는 어느 것이나 일본에서 듣고 알게 된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당초 중국 고전에서 나온 '器械'와 '機械'는 서로 의미가 다른 말이었으나, 일본이 서양 문명을 수용하면서 machine이나 machinery에 대한 번역어로 처음에는 '器械'라는 표기를 쓰다가 점차 '機械'라는 표기를 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어에 정착된 '機械'는 그 후 국어와 중국어에도 수용되었다. 당초 중국 고전에서 나온 '器械'는 일본어에서 이루어진 의미의 전용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島田豊(1888). 『附音插圖和譯英字彙』. 동경 : 大倉書店.

Lydia H. Liu(1995). *Translingual Practice :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棚橋一郎(1885). 『英和雙解字典』. 동경 : 丸善商社.

宋 敏(1999). 「開化初期의 新生漢字語 受容」.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語文學論叢』 18.

劉正埏·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4). 『漢語外來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佐藤喜代治(1979). 『日本の漢語』—その源流と變遷—. 동경 : 角川書店.

尺振八(1884). 『明治英和字典』. 동경 : 六合館.